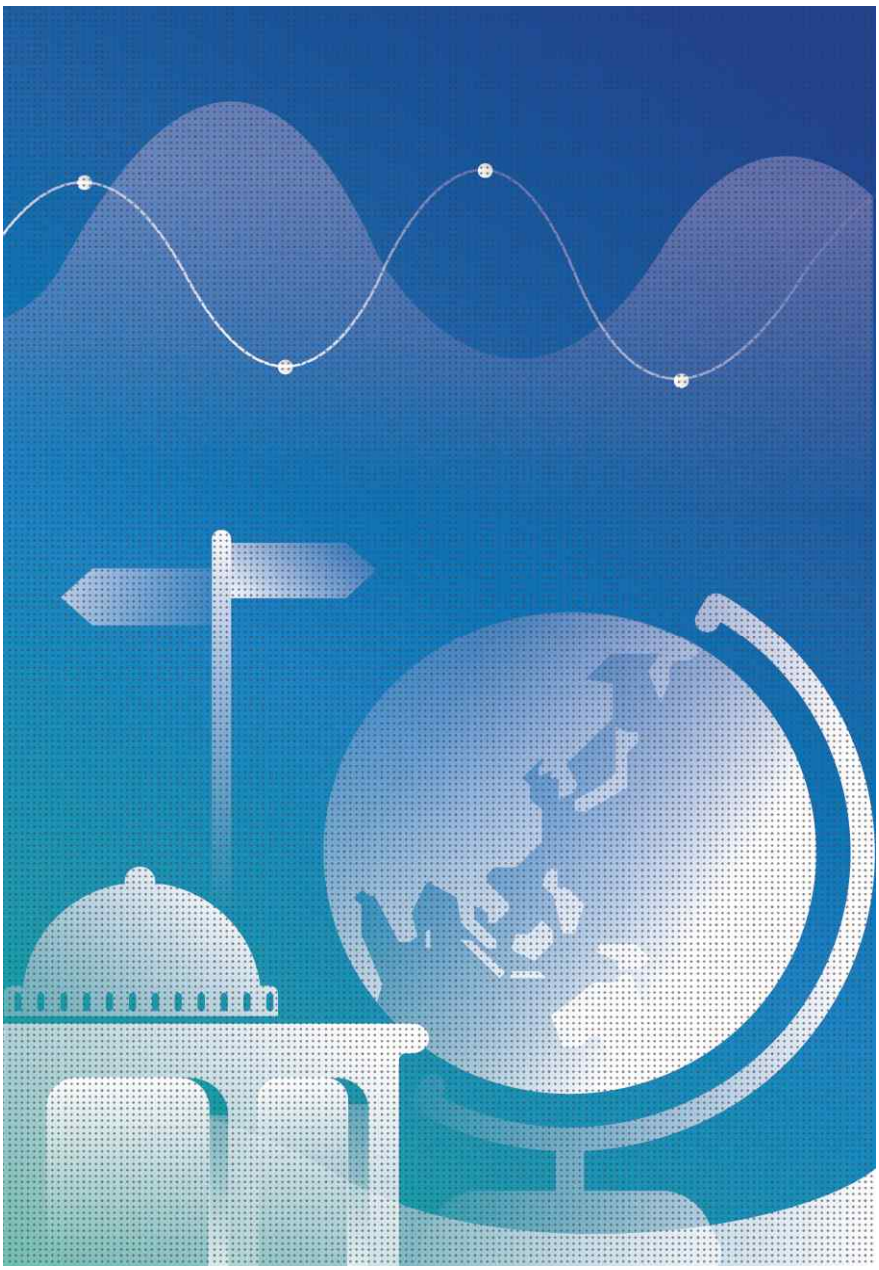
2021 ISSUE REPORT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1-지역이슈-11(2021.11)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와 시사점



CONTENTS

Ⅰ. 서방에 의한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Ⅱ.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제재 이후의 러·중 경제협력

Ⅳ. 전망 및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요 약>

- **(서방의 대러 제재)** 서방의 대러 제재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제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 정부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중간첩 스크리팔 독살 시도, 미국 대선 개입,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시행되고 있음.

  - 제재의 대상은 특정 인물 및 기업과 금융·에너지·군수 등의 산업에 대해 시행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의 영향)**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물론 투자, 금융 등의 부문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대외 협력,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가스관 건설, 군수품의 수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음.

- **(제재 이후 러·중 경제협력 확대)** 제제 시행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에너지 투자, 금융, 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의 전체 교역액은 감소하였으나, 중국과의 교역액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 비중은 2010~13년의 평균 9.9%에서 2018~20년에는 평균 16.8%로 크게 증가하였음. 양국의 교역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중국의 기계 및 설비 수출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지난 10여 년 동안 증가하였음.

  - 중국의 대러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전략사업인 야말 및 북극 LNG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하였음.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건설 사업들을 수주하였음.

  - 금융 부문의 협력도 확대되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증가하였음.

  - 기술협력에서는 중국 화웨이, 알리바바 등 주요 혁신 기업의 러시아 기관들과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평가)** 대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이 증가하고 에너지·금융 등의 부문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로 향후 러·중 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LNG 운반선 수주 등 조선 부문의 협력, IT 부문의 기술협력 및 러시아 시장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Ⅰ. 서방에 의한 대러 제재의 주요 내용

서방의 대러 제재의 시행과 전개

• 서방의 대러 제재는 2014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리주의 운동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되었음.

- 다수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정부의 크림반도 병합을 비판하였으며, 미국과 EU의 주도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시행되었음.

- 이후 러시아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대통령 선거 개입, 화학무기 사용 등 사건 발생에 따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확대 시행되어 왔음.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에 관련된 주요 사건

일 시	사건 내용	주요 특징
2014년 3월	친러시아계 무장세력의 크림반도 병합	서방의 대러 제재 개시
2014년 4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의 자치 선언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지역에서의 대치 지속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세력에 의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군 개입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사이버 공격, 여론 공작 등 의혹
2018년 3월	영국에서 러시아 출신 이중간첩 스크리팔에 대한 독살 시도	화학무기 사용
2018년 11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조프해 통행 제한과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2020년 8월	야권 운동가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화학무기 사용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사이버 해킹, 허위 사실 유포 의혹
2021년 1월	야권 운동가 나발니의 귀국시 체포 및 투옥	

서방의 대러 제재의 내용과 특징

• 서방의 대러 제재는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특정 산업이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재가 시행되었음.

- 미국은 러시아 정치인, 기업가 등 특정 개인과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초 기준 735명, 440여 개 기업에 대해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1] EU는 2021년 3월 기준 185명, 48개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2]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sanctions on Russia: an overview(September 1, 2021); https://www.statista.com

- 2014년 7월과 9월에 발표된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에 따라 금융, 에너지 산업, 방위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주요 제재 내용

분 야	대 상	주 요 내 용
특정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제재	정치인 및 관료 (대통령 행정실, 장관, 중앙 및 지역 관료), 기업인	자산 동결 및 입국 제한, 자산 및 수익의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및 기타 거래 제한 (제재 대상인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특정 부문에 대한 교역, 투자 제한	금융 기관	제재 대상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의 미국 금융시장 접근 제한(양도성 증권, 단기금융상품 매매, 중개 및 발행 금지)
	에너지 분야 기관(단체)	제재 대상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해 만기 60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 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방위산업 분야 기관(단체)	제재 대상 러시아 방위산업 기업에 대해 만기 30일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기타 부채 발생 행위 금지, 신규 자본거래 금지, 군수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전자기기 등 공급 제한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 관련 거래 제한	제재 대상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5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추진하는 러시아 영해 내의 심해, 북극해안, 셰일 석유 개발·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서비스, 기술이나 장비의 공급 금지
특정 지역과의 교역, 투자 제한	러시아 합병 지역인 크림 반도 관련	크림 공화국과의 교역 및 투자 제한

자료: https://treasury.gov (미국 재무부) 등 자료 참고

- 미국의 경우, 대러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2014년 12월)",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2017년 8월)" 등 법령을 근거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의 조치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대러 제재는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 Act)"에 따라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러시아의 대외 경제협력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방 간의 분쟁 해결 논의와 대립 지속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14년 9월과 2015년 2월 '민스크 협정' 체결을 통해 휴전 및 분쟁 지역의 평화 정착에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의 대러 제재도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12월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분쟁 지역에서의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의 소규모의 무력충돌이 지속되었음. 특히 2021년 4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호 외교관을 체포 및 추방한 데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 및 크림반도에 병력과 전투기를 집결시켜 양국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2) https://www.consilium.europa.eu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회담

일 시	참여국	주요 특징
2014년 6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o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크림 반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 - 향후 4개국 간의 회담을 지속키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4자 간 정상회담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으로 명명
2014년 9월, 벨라루스 민스크	OSCE, 러시아, 우크라이나	o 민스크 협정 체결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분쟁당사자들 간의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안전지대 구축 등 합의
2015년 2월, 벨라루스 민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o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민스크 협정-2' 체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 중화기 철수, 러시아와의 기존 국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 회복, 돈바스 지역의 자치 확대와 지방선거 실시 등에 합의
2019년 12월, 프랑스 파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o '완전하고 포괄적인 휴전' 및 포로 추가 교환에 합의 - 다만,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역의 지위에 대해서는 미합의

-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등 친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도 지속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021년 8월 키예프에 46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참여국 대표들은 크림반도 점령에 대한 평화적 종식 노력에 합의한다고 선언하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반환을 압박하였음.
- 대외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및 나토 가입을 통해 서방사회와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Ⅱ.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는 제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4년 0.7%의 저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2.0%의 마이너스 성장, 2016년 0.2%, 2017년 1.8%의 성장을 기록함. 러시아는 2018~19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신흥국 평균이나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에 그쳤음.

- 2019년 발표된 IMF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연평균 0.2%p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3)]

러시아, 신흥국 평균 및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비교(2017~19년)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러시아	1.8	2.8	2.0
신흥국 평균	4.8	4.6	3.7
세계 평균	3.8	3.6	2.8

자료: IMF

러시아의 경제성장률(201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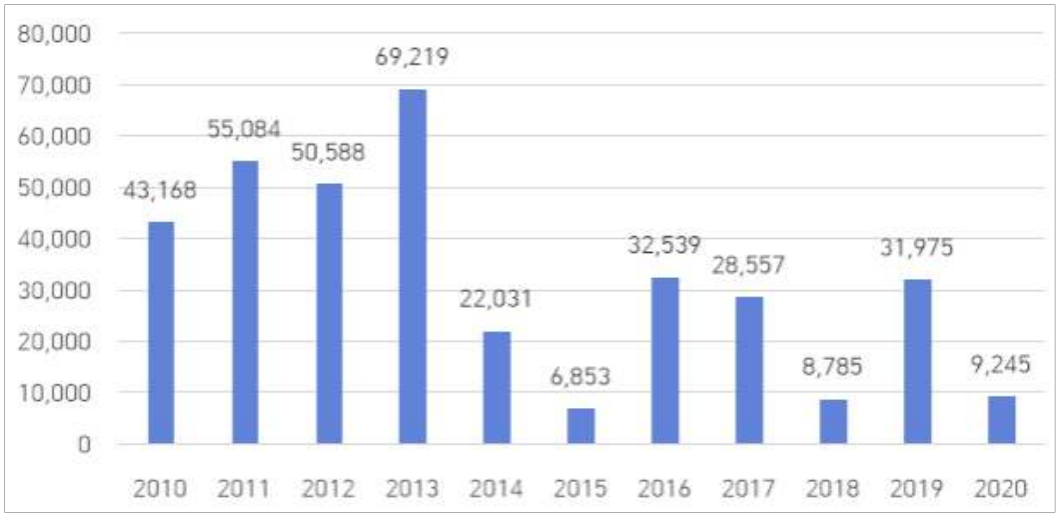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MF

3) IMF(2019), Russian Federation – Article IV Staff Report, p. 5.

러시아의 FDI 순 유입액(2010~20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 이후 2014~15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20년까지 제재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 감소는 세계 경기침체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됨.[4)]

4) Anders Åslund and Maria Snegovaya(May 3 2021), "The impact of Western sanctions on Russia and how they can be made even more effective," Atlantic Council.

러시아의 교역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의 교역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의 8,63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4,731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음. 이후 2018년에는 6,92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까지 제재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교역액 감소에는 최대 수출품목인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과 대러 제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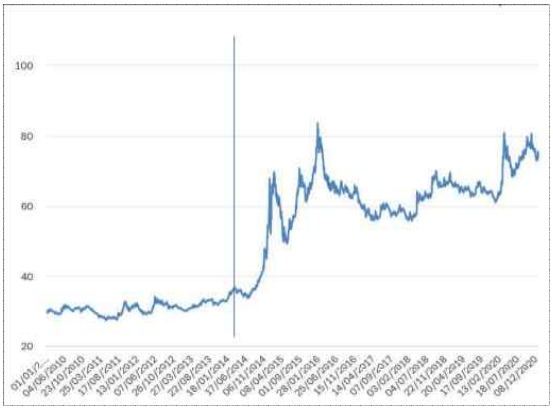
-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 이후, 루블화 환율은 대러 추가 제재 시행에 따라 단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음.

- 제재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은 2018년 4월 6일 제재 발표(기존의 제재 대상에 7명의 기업인과 12개 기업, 17명의 고위 관료 추가), 2018년 8월 27일 제재 발표(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에 따른 신규 제재) 이후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5) European Union(2017), *Russia's and the EU's sanctions: economic and trade effects, compliance and the way forward.*

루블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변동 추이(2010.1.~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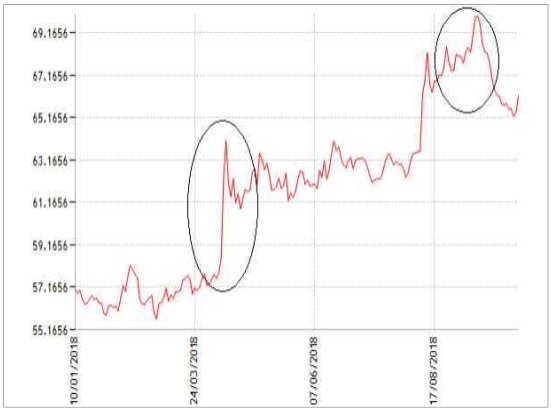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대러 제재에 따른 루블화 환율 변동 (2018년 4월, 2018년 8월)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의 주력산업인 에너지 산업, 군수 산업에도 역시 현저한 영향을 주었음. 제재로 인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의 건설이 지체되었으며, 군수품의 수출이 제한되었음.

Ⅲ. 제재 이후의 러·중 경제협력

러·중 교역 협력, 서방의 제재 시행 이후 확대

-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행된 시기에 러시아의 전체 교역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교역액은 증가하였음.

- 러·중 교역에서 제재가 시행된 기간을 포함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1.75배 증가하였음. 양국 간 교역액은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를 나타낸 2015~16년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였음.

- 2010~20년 동안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수출액의 증가에 따라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였음. 이에 따라 2018~19년에 러시아는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대중국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액 추이(201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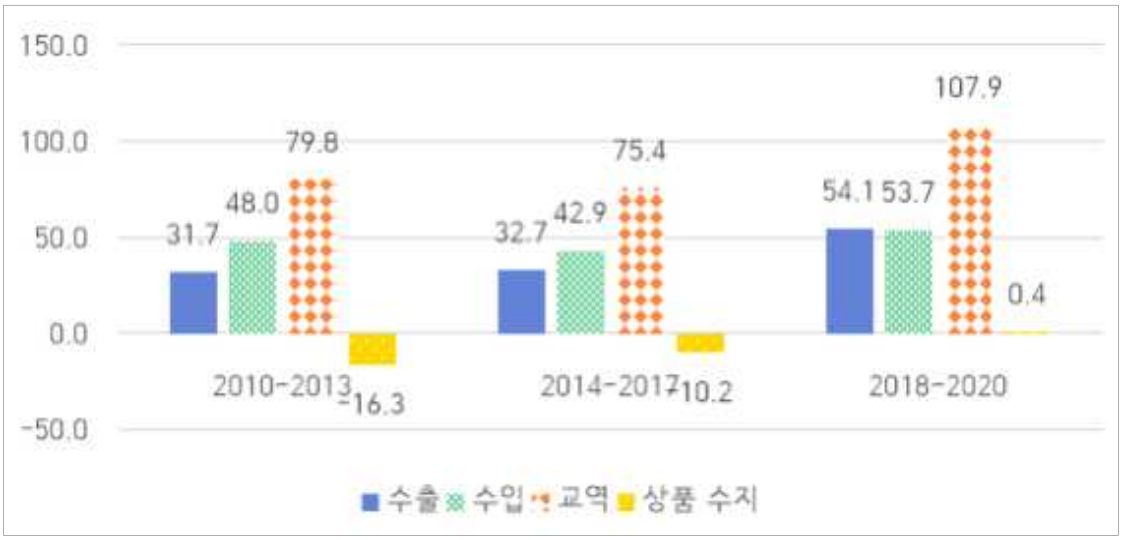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20.3	35.2	35.8	35.6	37.5	28.6	25.9	38.9	56.0	57.3	49.1
수 입	39.0	48.2	51.8	53.1	50.8	34.9	37.8	48.1	52.2	54.1	54.9
교역액	59.3	83.4	87.6	88.7	88.3	63.5	62.7	87.0	108.3	111.5	104.0
상품수지	-18.7	-13.0	-16.0	-17.5	-13.3	-6.3	-11.9	-9.2	3.8	3.2	-5.8

자료: IMF

러시아의 기간별 대중국 수출, 수입, 교역, 상품수지 평균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 양국 간의 교역액 증가에 따라 러시아의 전체 수출입 및 교역에서 중국과의 수출입 및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하였음.

- 2018~20년에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의 16.8% 비중으로 전체 수출의 13.7%, 수입의 21.7% 비중을 기록하였음. 이러한 비중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10~13년의 평균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임.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 비중 변동(기간 평균)

단위: %

자료: IMF

• 양국 간 교역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중국의 기계 및 설비 수출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제재가 시행된 시기에도 이 품목들의 교역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음.

-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액 중 에너지 수출액의 비중은 2010년의 50.6%에서 2020년에는 60.3%로 증가하였음. 대러 제재가 시행된 2014~20년의 에너지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68.2%로 제재 이전 시기인 2010~13년의 63.9%보다 4.3%p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러시아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 및 기계·설비 수입 비중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수출	50.6	64.6	69.5	70.7	74.0	66.1	68.7	64.8	73.6	69.8	60.3
기계 및 설비 수입	49.7	51.4	52.3	45.2	46.1	48.7	53.2	53.0	50.8	45.5	58.9

자료: https://russian-trade.com

-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에서는 전체 수입액 대비 기계·설비 수입 비중이 2010년의 49.7%에서 2020년에는 58.9%로 상승하였음. 대러 제재가 시행된 2014~20년의 기계·설비의 평균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50.9%로 제재 이전시기인 2010~13년의 49.7% 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음.

중국의 대러 에너지 투자 지속

- 서방의 제재 이후, 서방 기업의 대러시아 에너지 부문 투자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

- 대러 제재 시행 이후 ExxonMobil, Total, Royal Dutch Shell 등 기존에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사업에 진출하였던 서방의 주요 석유메이저들이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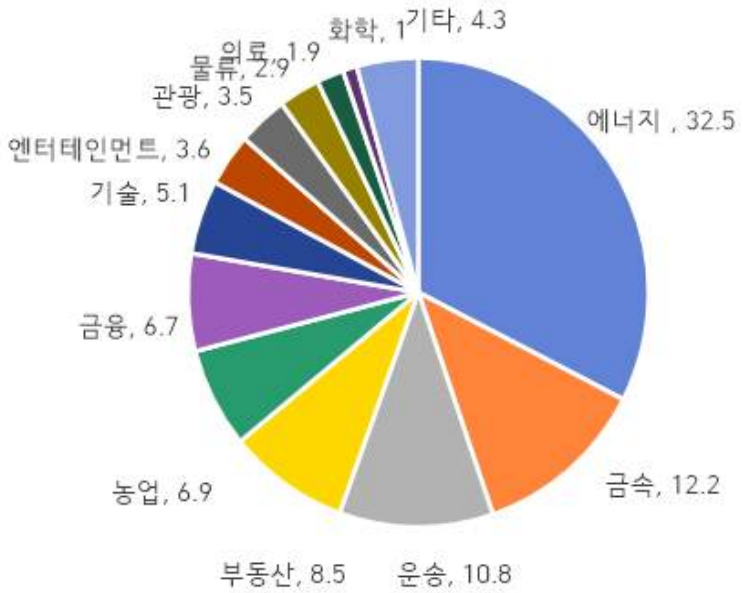
- 반면 중국 주요 에너지 기업인 CNPC, SINOPEC 등이 참여하는 신규 석유·가스 투자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음.

- 2005~19년 기간 동안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 누적액 가운데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32.5%로 최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투자 비중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중국의 대러시아 투자액의 부문별 비중(2005~19년 누적)

단위: %



자료: https://magazine.neftegaz.ru

중국의 전 세계 및 대러시아 투자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세계	55.3	52.6	53.2	46.2	28.5	26.7	20.9	11.7	23.0	34.0
러시아	63.9	77.9	23.5	41.8	93.0	63.6	100.0	100.0	0.0	90.2

자료 : https://magazine.neftegaz.ru

-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 기간에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말 및 북극 LNG-2 프로젝트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 러시아 Novatek(지분율 50.1%), 프랑스 Total(지분율 20%)이 추진하고 있는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는 중국의 CNPC가 2014년 20%, 실크로드 펀드가 2016년 9.9%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 2023년에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극 LNG-2 프로젝트에도 중국 기업이 지분투자를 하고 있음. 2020년에 중국의 CNPC와 CNOOC가 각각 10%씩의 지분(이외에 Novatek 60%, Total 10%, 일본 미쓰이물산 10% 지분 보유)을 획득하였음.

- 또한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 기간에 China Energy Engineering 등 중국의 주요 에너지 건설기업들은 Gazprom 등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이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을 수주하였음.

중국의 주요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연도	투자액 (백만 달러)	중국 기업	러시아 기업	부문	중국 지분
2010	170	Three Gorges	EuroSibenergo	수력에너지	-
2011	2,290	Three Gorges	EuroSibenergo	수력에너지	50%
2012	590	Huadian	TGC-	전력	100%
2013	1,140	State Grid	Sintez	전력	
	460	Shenhua	En+	석탄	50%
	620	CNPC	Rosneft	석유	49%
2014	990	CNPC	Vankorneft	석유	10%
	1,460	Power Construction Corp.	RusHydro	수력발전	49%
	450	Harbin Electric	Altai Condensing Power Plant	대체에너지	100%
	940	CNPC	Novatek	가스	20%
2015	1,210	SAFE	Novatek	가스	10%
	1,340	Sinopec	Sibur	가스	10%
2016	1,080	Beijing Enterprises	Verkhnechonskneftegaz	가스	20%
	1,150	SAFE	Sibur	가스	10%
2017	500	CEFC China Energy	EN+	가스	-
	4,040	CIC	Eurasia Drilling	석유	6%
2019	4,040	CNPC, CNOOC	Novatek	가스	20%
2021	330	Sinopec	Sibur	석유화학	40%

자료: https://www.aei.org

에너지 관련 중국 기업의 건설 수주

연도	투자액 (백만 달러)	중국 기업	러시아 기업	관련 부문
2014	1,640	CNOOC	Gazprom	가스
2016	260	China Energy Engineering	Rybinsk Power	가스
2017	1,170	China National Chemical Engineering	NNK	석유
2017	2,520	CNPC	Gazprom	가스
2017	1,470	China Energy Engineering	Gazprom	가스
2019	610	Bomesc Offshore Engineering	Technip	가스

자료: https://www.aei.org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위안화 비중 증대 등 금융협력 확대

-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야말 LNG 사업에서 서방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Novatek은 중국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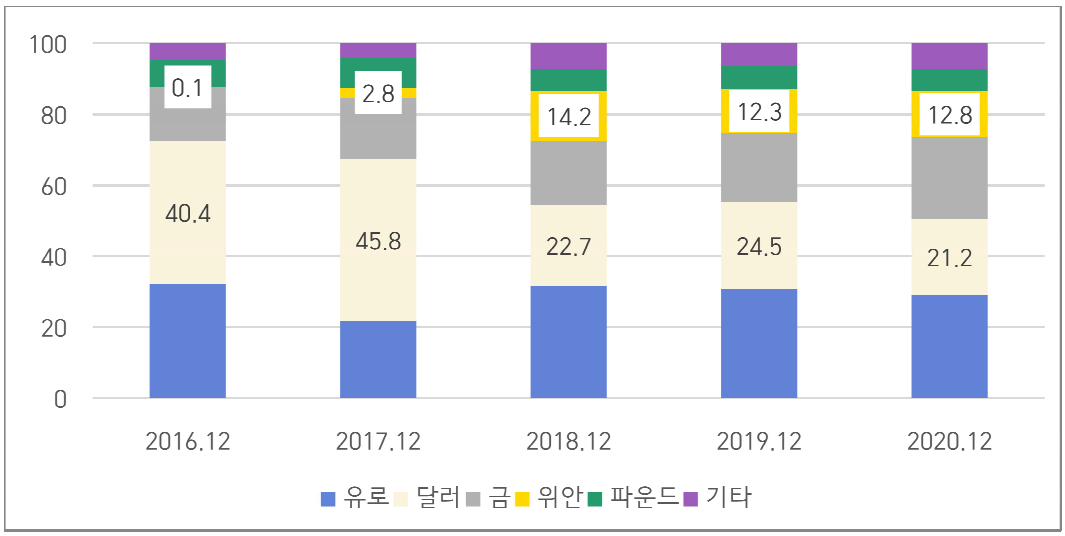
- 2016년에는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야말 LNG 사업에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이 모두 1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었음.

-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진행된 시기에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미 달러화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위안화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음.

-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2016년 12월의 0.1%에서 2020년 12월에는 12.8%로 크게 상승하였음. 반면 미 달러화의 비중은 2016년 12월의 40.4%에서 2020년 12월에는 21.2%로 거의 절반이 감소하였음.

러시아 외환보유액 구성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러·중 교역에서 미 달러화의 결제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러·중 교역에서 위안화의 결제비중은 2014년의 3.1%에서 2020년에는 17.5%로 급격히 상승하였음. 반면 미 달러화의 결제비중은 2015년의 90%에서 2020년 1분기에 46%로 떨어져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하락하였음.[6)]

- 2021년 9월 극동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중국 내 34개 공항에 항공유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의 Gazpromneft사가 항공유 결제 대금을 미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받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양국 교역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7)]

- 이외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에 24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에 동 계약을 연장하였음.

중국 혁신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

- 중국 혁신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러·중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화웨이 그룹 등 중국의 혁신기업이 2019년 이후 미국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20~21년을 "러·중 과학기술 혁신의 해(Year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양국 간 연구개발 및 투자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 시장 진출에서 각종 제약에 직면한 중국 최대 IT 기업 화웨이는 최근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음. 화웨이는 20여 년 전부터 모스크바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2017년부터는 MTS, Vimpelcom 등 러시아 주요 통신기업들과 5G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8)]

- 이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에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화웨이는 최근 카바르디노-발카리노 대학에 정보통신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인력도 기존의 900명에서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9)]

- 아울러 화웨이는 2018년 러시아에 첫 전문매장을 개설한 이후 18개의 매장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러시아 전역에 50개의 매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러시아 소비

6) https://www.ng.ru; https://iz.ru
7) https://www.reuters.com
8) https://www.huawei.com
9) https://www.russia-briefing.com

시장 진출 확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알리바바 그룹은 2019년 러시아 통신기업 Megafon 등과 합작으로 AliExpress를 설립하였음. 알리바바 그룹과 함께 러시아의 혁신 부문 대기업인 Mail.ru, Megafon과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FID)가 AliExpres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10] AliExpress는 2021년 3월에는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에 위치한 인터넷 쇼핑 회사인 KazanExpress의 지분 30%를 확보하며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기타 혁신 서비스) 2021년에는 '중국판 우버'로 평가되는 차량호출 부문 서비스 기업인 '디디(Didi)'사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카잔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음.

10) 설립 당시 지분구조는 알리바바 그룹 48%, Megafon 24%, Mail.ru Group 15%, RFID 13%로 구성됨. (자료: https://chozan.co)

Ⅳ. 전망 및 시사점

러·중 간 협력은 기존의 교역·에너지·금융 협력에서 우주·군수·기술 협력으로 확대 전망

- 서방의 대러 제재 시행의 여파로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중국의 대러 에너지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간 금융·기술 부문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

- 제재 시기에 러시아의 전체 교역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여, 러시아의 교역에서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상승하였음. 또한 중국 에너지 기업의 대러 투자가 계속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 러·중과 서방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러·중 협력은 군수·우주·기술 부문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군수 부문에서 그동안에도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11] 2021년 9월 미국 주도로 창설된 '오커스(AUKUS(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미국, 호주, 영국 간의 안보 동맹)'에 대응하여 중국이 세력균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우주 협력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우주 프로그램('아르테미스 프로그램')[12] 등에 대응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5년까지 달 기지 건설, 소행성 탐사 등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화웨이 등 중국 혁신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시행의 영향으로 향후 러·중 간 기술협력과 중국 IT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에너지 및 기술 부문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확대는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 협력)** 향후 중국의 대러시아 LNG 프로젝트 투자 및 LNG 수입 확대 등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해운기업들이 러시아산 LNG의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운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됨.

---

11)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는 무기 수출의 18%를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이 기간 중국은 무기 수입의 77%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였음.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0. March 2021.

12) 미국 항공우주국이 2024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으로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기술협력)** 현재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등 혁신 부문의 대러 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확대는 한국 혁신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의 조선기업 및 IT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에 비해 우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부문에서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력과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조선·해운 기업들은 Novatek을 비롯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발주하는 LNG 운반선 수주와 러시아산 LNG 수송에 대한 참여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기술 부문에서도 러시아 기술 도입 및 원천기술 상용화 등을 위해 한·러 연구기관 및 기업들 간의 기술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한국 IT 기업들의 러시아 IT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한·러 기술협력 현황

ㅇ (한국 스타트업 진출 추진) 정부는 우리 기업들과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러시아 진출을 추진 중
- 2019년 러시아 현지에 로봇, 엑스레이, 전자상거래 등 5개 기업이 진출하였음. 2020년에는 10개사가 스콜코보 재단 혁신센터 입주 프로그램을 수료하였고, 1개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

ㅇ (원천기술 상용화 지원) 러시아 원천기술과 한국 중소기업의 응용·제조기술을 결합하여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 중

ㅇ (현지 시장 진출 추진) 유망 소비재의 모스크바 전시·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와이드베리즈' 내에 한국 전용관 구축

자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자료(2021.9.27.)

< 참 고 문 헌 >

Anders Åslund and Maria Snegovaya(May 3 2021), "The impact of Western sanctions on Russia and how they can be made even more effective," Atlantic Counci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sanctions on Russia: an overview(September 1, 2021)

European Union(2017). Russia's and the EU's sanctions: economic and trade effects, compliance and the way forward.

IMF(2019). Russian Federation – Article IV Staff Report.

Sipri(March 2021).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0.

Central Bank of Russia (러시아 중앙은행)

https://www.treasury.gov (미국 재무부)

https://russian-trade.com

https://www.statista.com

https://www.aei.org

https://www.ng.ru

https://iz.ru

https://www.reuters.com

https://www.huawei.com

https://www.russia-briefing.com

https://chozan.co

IMF